

교육, 마을에서 미래핵심역량 기르다

(전국 최초 지자체가 방과후학교를 책임지다.)

이동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도봉구청장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교육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임. 그러하기에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래사회¹⁾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함께 탐색되어야 함.
-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 필요.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
- 또한 교육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사회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 암기식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역량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전환.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7년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mpetencies) 프로젝트를 진행함
- OECD는 2015년 DeSeCo 프로젝트의 2.0버전 교육 2030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 DeSeCo 프로젝트가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도출해내는 것 이었다면, 교육 2030 프로젝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평가시스템 등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6가지 역량을 제시함.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 제시

< 6대 핵심역량 설명 >

1)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년 연구 참조
2030년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 '① 인구구조의 변화, ②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③ 과학·정보기술의 발달, ④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⑤ 환경 문제 및 자원 부족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⑥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의 다양화 전망

2. 국내 교육환경의 변화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연계·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 교육영역에서 일반자치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교육영역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발족 및 운영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사례

급변하는 사회 변화속에 지식중심의 배움에서 미래사회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은 교과서가 아닌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가 되어 실제 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도전과 배움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이란?

방과후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적인 영역을 제외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교육활동, 놀이, 여가문화생활, 자기주도적 동아리(프로젝트) 활동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도봉구가 직접 운영, 지원하는 사업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 ①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② 출산율의 저하,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방과후 교육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③ 우리 지역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과 책임이 오로지 학교교육에게만 부과되어서 안되며 도봉구청과 지역사회의 권한과 책무성 필요
- ④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화를 위한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 목적

- ①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하고, 도봉구와 지역사회는 방과후를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학교 교육협력 모델 창출

- ② 도봉구의 교육 책무성 강화, 지역사회 교육력 확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 대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과후교육 및 활동 실시)
- ③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스스로가 신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 ④ 학교 단위를 넘어 마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3.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 사업의 핵심요소

- 아동·청소년의 삶에 주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영역에서 책무성 확대와 교육기관과의 연계에서 협력적 분업 관계 조성
- 경험적 학습(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지역화된 교육이 바로 미래교육이다.

4.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 내용

- 운영근거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2조의1(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은 법적근거가 없이 교육부 고시에 의해 운영 중. 학교에서 운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 중점사업

분 야	내 용
○ 학교 안 방과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학교 방과후학교를 도봉구가 직접 운영 (2019년 초등 10개교 156개 프로그램 직접 운영) 다양한 문화·예술·과학·스포츠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를 도봉구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역교육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통합 수강신청 안내서 배포를 통해 10개교 프로그램 교차신청 가능
○ 학교 밖 방과후 마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계 (거점)마을학교 운영 • 교육복지관련 마을학교 : 교육복지대상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 동별 마을교육공동체: 동단위 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학교,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청소년기관, 학부모, 교육활동가등으로 구성) • 2019년 99개 방과후 마을학교 직접 운영
○ 개(開)판 5분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이 방과후에 직접 기획-실행-평가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 아무런 주제의 제한 없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방과후에 5인 이상의 청소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젝트 • 2018년 57개 팀 1,500여명 참여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돌봄협의체 (지원청 ⇒ 지자체) • 혁신교육지구 운영 경험과 교육자원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마을 돌봄 모델 구축 (마을교사, 마을학교, 동별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 등)

4.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을 통한 변화 지점

□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는 프로젝트 활동 증가
-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증가

□ 도봉구의 변화

-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속적인 교육관련 예산 증액 및 아동·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 아동친화도시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

5.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을 의의와 성과

의의와 성과지점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영역에서 지원자가 아닌 중요한 교육주체임을 확인
- 새로운 유형의 마을-학교 협력모델 구축
- 교육을 통한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 기대
- 2018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

6. 도봉형마을방과후활동 발전방안

- 동 단위 교육력 확대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망 구축
-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
- 배움의 주체를 아동·청소년의 주도성 발휘
- 방과후 놀이 활동 활성화
- 생활체육회, 도봉문화재단 등 연계 협력 강화